

임원 후보 출마의 변(辯)

후보 조마리는 1990년 봄에 한국여자 프로 골프협회에 정회원이 된 후
23세에 삼성에서 경영하는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에 입사하여
완성된 사회인이 되기 위해 골프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조직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정을 받아서
10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갈증과 자아발전을 위해서 뒤늦게 대학원에 도전하여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골프학과에서 골프실기는 물론, 골프장 경영과
마케팅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란 큰 조직에서 오랜 시간들을 건디면서 제대로 배운 저의 업무관리능력과
대학원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들을 이제는 한국여자골프협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직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작성자: 조마리